

# 국방안보정책 연구동향과 과제



박 경 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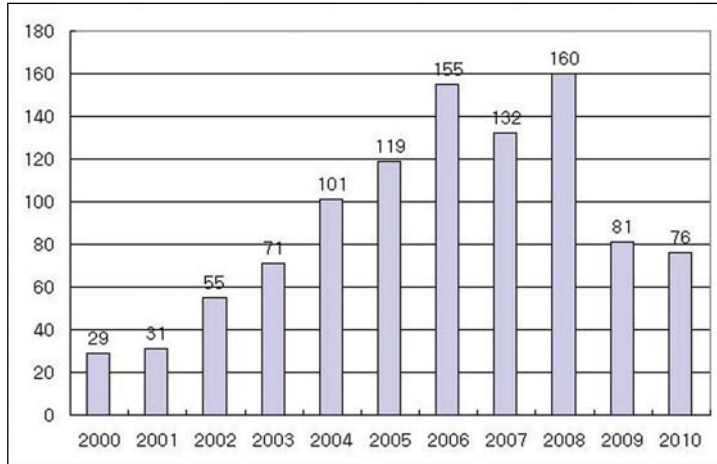
· 한국정책평가연구원 원장  
· 국방/안보/안전정책 분과연구회장

## 1. 국방안보정책 연구는 잃어버린 영역(Missing Part)인가?

2010년 천안함 폭침 및 연평도 포격 도발 등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일련의 사태를 계기로 한반도 주변국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등 동북아 안보정세가 급변하고 있어, 북한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한반도 평화의 정착을 위한 정책적 대응이 요구되는 있는 시점이다. 이에 따라 다양한 각도에서의 국방안보정책의 재조명과 새로운 방향의 정립을 위한 학제적 연구가 절실하다. 그럼에도 그동안 행정학계의 국방안보정책에 대한 관심은 매우 미약하여 마치 ‘잃어버린 영역(Missing Part)’ 이 된 듯하다.

이에 국방안보정책 분야에 대한 학계의 연구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논문의 발표현황을 살펴보았다. 국회도서관 학술논문 검색 시스템을 활용하여 한국연구재단(구 한국학술진흥재단)의 등재지 및 등재후보지에 수록된 논문에 한정하고, 2000년부터 2010년까지 ‘국방, 안보, 대북, 군사’의 네 개의 키워드로 검색해 본 결과 11년간 총 1,010편의 관련 논문이 발표되었으며, 노무현 정부시기인 2003년부터 2007년 사이에 578편(57%)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그림 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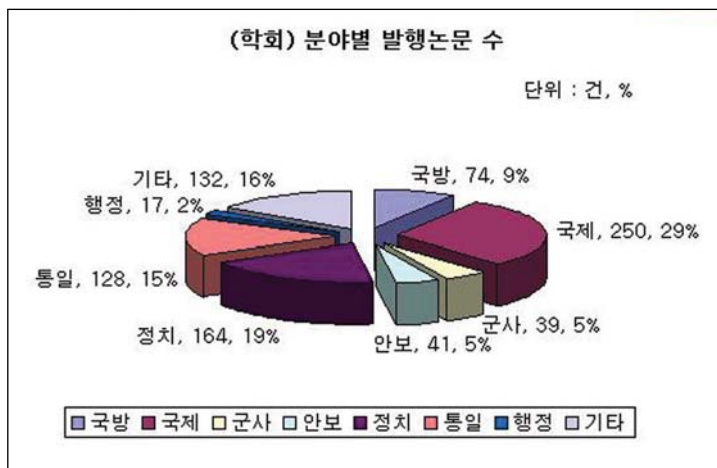
〈그림 1〉 국방안보정책관련 발표논문 편수



관련논문을 주로 산출해낸 학회의 분포를 보면, 사회과학관련 학회가 134개(64%)로 가장 많았고, 인문학(21%), 공학(9%), 자연과학(4%), 예체능(2%) 순으로 나타나 국방안보부문이 다학문적 접근이 가능한 영역임이 확인된다. 이 가운데 사회과학 관련학회에서 발표

된 국방안보관련 논문은 총 845편이며, 외교 및 국제관계, 정치관련 학회가 414편으로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통일, 안보, 국방, 군사 관련 학회가 282편(33%)인데 반해, 행정관련 학회는 모두 9개 학회의 17편(2%)에 불과하다(그림 2 참조).

〈그림 2〉 사회과학 관련학회별 발표논문 현황



그 내역을 보면, 한국행정학회(4편), 한국정책학회(2편),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4편), 한국정부학회(2편), 한국지방자치학회, 서울행정학회, 한국지방정부학회, 한국국정관리학회, 한국도시행정학회가 각각 1편씩이다. 발표 논문의 연구주제를 보면, 국방예산과 복지예산의 상관관계, 국방예산 개혁 및 구조, 국방비와 경제성장 인과관계, 영향요인(박광국 외, 2000; 하연섭, 2001; 이은국, 2002; 함성득·윤기중, 2002), 대북정책 요인분석 및 군사정책결정 모형 연구(이학수, 2001; 허출, 2004), 정보화사업, 연구개발사업, 재정 성과관리 연구(이재영, 2004; 강성진, 2005; 이덕로, 2008), 국방시설 갈등조정, 군사통합 방안 및 군사력 평가(김천영, 2002; 김기수, 2001; 김대기·문영세, 2006) 대북송금개선 및 대북 포용정책, 정부업무평가 등 연구(박홍식, 2006; 정석환·홍영교, 2007; 문영세 2005), 평화 거버넌스 및 국가안보재 가치분석(김진호·고경민, 2005; 김상봉, 2008) 등이다. 분석결과는 그동안 국방안보분야에 대한 학술연구가 정치, 외교, 통일, 군사 관련학회 및 국책연구기관 중심으로 이루어져왔고, 행정학 및 정책학자들의 연구 활동은 상당히 미약했음을 보여준다.

한편, 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행정학회지인 'Public Administration Review'에서 'defense'를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 2000년부터 2011년 4월까지 총 311건의 논문(Booknotes 포함)이 검색되었다. 물론 국방정책 및 안보분야와 어느 정도 밀접한 관련

이 있는지는 차치하더라도 연구경향을 살펴보는 데에는 참고할만하다. 미국행정학계에서는 2001년 9.11이후(Post-September 11 Era) 국가 안보(Homeland Security) 및 국방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분야 연구도 증가하고 있으며, 주요 연구주제는 국방 및 안보분야의 전략기획, 관리 개혁, 성과예산, 인사 및 관료조직,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 대테러 및 위기·재난관리, 공기업 민간화와 민관협력, 직장 복지, 성 형평성 및 행정윤리, 공공서비스 혁신 및 시장화(marketization), 리더십 등으로 광범위하다.

## II. 국방안보정책분야의 이슈와 새로운 연구영역의 모색

국방안보관련 분야가 다학문적 영역을 포괄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나, 일반행정 및 정책학 차원에서 접근할 여지가 상당히 많고, 국방부와 군, 국방안보관련 기관들도 정책공감대 형성 및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많은 정책과 정보를 공개하고 있어 어느 때보다도 연구여건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국방안보정책 분야의 정책환경의 변화 추세를 살펴보고 국방안보정책분야의 이슈와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연구영역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재 우리 군은 2015년 전시작전권전환에 대비하고, 천안함·연평도 사건 대응과정에서 드러난 취약점을 보완하고 합동작전 중심의 전투형 군대로 육성하기 위한 국방개혁2020과 군 상부구조 개편을 포함한

국방개혁 지침인 307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국방부도 정부업무기본법(2006.4.1시행)에 의거 3년 주기 성과관리전략계획 및 연도별 성과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부처 전문업무에 대한 성과관리를 실행하고 매년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체평가위원회로부터 자체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2008년부터 정부정책기조에 맞춰 민간경영 기법을 접목하여 경영효율화를 추구하기 위해 수도병원, 각군 보급창, 인쇄창 등을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국방부 산하 군 기무·정보기관을 포함한 25개 직속 합동부대 및 기관에 대해서도 매년 ‘국방기관 업무평가’를 실시하는 등 효율적이고 성과중심적인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한 변화와 혁신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방안보정책의 방향 정립과 실효적인 정책집행을 위한 정책연구자의 관심과 연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 순수한 군사적 아젠다를 제외하고 새롭게 대두되는 연구영역을 들자면, 첫째, 대북정책 및 국방개혁 정책 등에 대한 영향요인이나, 역대 정부의 국방안보정책의 비교분석,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국방정책의 방향, 다자외교안보와 안보과제, 국방안보에 대한 국민인식도 변화 분석, 신세대의 안보관 변화와 병역제도 개선 등에 대한 포괄적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국방인적자원의 전략적 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인사 조직의 효율화 방안, 확대되고 있는 민간전문계약직의 선발 및 운용, 퇴

직예정군인의 전직교육, 국방부 고위직 문민화 및 고위공무원단 운영, 군내 여성인력 운영 및 성희롱(Sexual Harassment)과 양성평등 등도 주요 연구대상이 될 수 있다.

셋째, 성과중심적 기관 운영과 관련하여 범정부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자체평가제도, 군 책임운영기관 제도, 국방기관 업무평가 등과 관련된 전략기획(Strategic planning), 성과관리의 효과 및 성과평가모형 등의 연구가 활성화 될 필요가 있다. 특히 국방개혁, 국방교류협력, 한·미 군사동맹, 국제평화유지 활동 등 주요정책의 정책형성(policy formulation), 정책집행(policy implementation), 정책평가(policy evaluation) 차원의 분석적 연구가 요구된다.

넷째, 국방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전통적 연구주제인 국방예산의 획득과정 및 운용의 제반 요소에 대한 연구, 예산의 효율성 및 효과성 분석, 재정사업 성과관리의 실태 분석, 국방기관의 경영화를 촉진시키고 있는 군 책임운영기관의 효율성 분석, 국방보급체계의 효율화, 국방정보화 및 R&D 투자, 민간 아웃소싱의 운용방향 등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다섯째, 대국민 신뢰제고 및 민·군간 협력의 확대에 따른 다양한 연구주제도 떠오르고 있다. 예를 들어, 국방민원업무의 프로세스 혁신 및 민원만족도 제고, 군사보호구역제도 운용이나 군시설 이전과 관련된 민·군 갈등관리 및 국방 규제개혁 등이 있다.